

## RESEARCH ARTICLE

#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Diamond Sutra Prayer”

Choi, Yeongim(Ven. Seungwoo)\*

Section Chief, Department of Prayer and Faith, Woljeongsa

## 「금강경 기도」 참여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최영임(승우)\*

월정사 기도신행국 과장

\*Corresponding Author: cyi1128@naver.com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prayers that participants in ‘Diamond Sutra Prayer’ wished for in their prayers, and to explore the impact of Diamond Sutra Prayer on individual lives.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30 participants in the Diamond Sutra prayer. The survey was collected by directly collecting questionnaires between May and June 2023,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according to a modified consensus qualitative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3 areas, 9 subareas, and 28 subcategories were derived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 First, four sub-areas were derived from the content of the prayers of ‘Diamond Sutra Prayer’ participants: prayers for ‘me’, prayers for ‘family’, and prayers for ‘acquaintances’. A prayer, and a prayer for ‘all living beings’. Second, three sub-areas were derived from the changes through ‘Diamond Sutra Prayer’ targeting participants in ‘Diamond Sutra Prayer’: internal change, change in relationships with people around them, and efforts related to Diamond Sutra prayer. Third, in terms of what the ‘Diamond Prayer’ participants were doing for their neighbors, two sub-areas were derived: what they were doing for their neighbors at an internal level and what they were doing directly to others for their neighb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practical experiences in temple-based Diamond Sutra prayers and provide basic data on factors to be considered in future planning.

**Keywords:** Diamond Sutra prayer, participatory experience, modified consensual qualitative method, exploratory research



### OPEN ACCESS

**Citation :** Choi, Yeongim. Qualitative study on experiences of participating in “Diamond Sutra Prayer”. Journal of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30, 57-69.

**DOI:** <https://doi.org/10.12972/mpca.20230010>

**Received:** November 20, 2023

**Revised:** December 21, 2023

**Accepted:** December 23, 2023

**Copyright:** © 2023 Meditation based Psychological Counsel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의례 중 하나가 기도다. 불교의 기도는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고 가피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 즉, 발원을 바탕으로 한 수행을 기본으로 한다(한국일보, 2008).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스로 다짐하고 바람을 말로 하거나 염불, 독경, 사경, 절 등을 통해 정신을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 틱낫한 스님(2016)은 수천 년 동안 베트남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향을 사르고 조상들에게 기도해왔다고 하면서, 기도할 때 ‘절하는 이와 절 받는 이가 본디 함께 비어있네, 그러니 우리 사이의 소통은 말할 수 없이 완벽하구나’로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 말은 부처의 성품과 중생의 성품이 비어있다는 뜻이다. 비어있다는 말은 나와 부처가 동떨어진 두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 즉, 기도하는 자와 기도받는 자가 서로 동떨어질 수 없는 두 존재이며 이것이 불교의 근본이다. 즉, 기도할 때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지녔던 사랑과 마음챙김, 그리고 지혜가 자신에게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처와 우리 사이에는 분별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다. 법화경은 부처님이 ‘살아있는 모든 중생에게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의 본성이다’라고 하고 있다. 부처님의 본질은 부처의 성품이다. 우리 모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에게 기도할 때 우리는 부처의 성품에 접속되며, 자신에게 기도할 때도 부처의 성품에 접속된다.

기도는 부처님, 보살님의 본원력, 공덕의 가피를 빌려 기도하는 자의 소망, 문제를 해결한다(법보신문, 2019). 기도란 절대적인 존재에게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다. 기도는 자신의 힘으로만 닦는 게 아닌 부처님의 은혜와 가피를 빌려 불도를 닦는 수행이다(불광미디어, 2012). 기도는 불교의 핵심 즉, 삼법인(三法印)을 사용한다. 첫째, 무상이다. 무상이란 세상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사물들은 무상하여 끝없이 변화한다. 둘째, 무아이다. 다른 무엇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받는 사람 어느 한쪽도 독립된 자아가 없다. 개인의식도, 집단의식도 둘이 아니다. 집단의식에서 떨어진 개인의식은 없다. 셋째, 열반이다. 궁극의 차원인 본성과 연관 짓는다면, 이 세계가 열반이다. 새, 나무, 사람, 꽃,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상들의 한결같은 본성을 깊이 만날 줄 알면, 이 현상계를 통해 궁극적인 차원인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불교의 기도는 이 삼법인의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부처의 성품에 도달하고 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고통에서 보호받도록 해줄 수 있다.

불교인들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인다.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열고 땅바닥에 밀착시키는 몸짓이 절이다. 말로 하는 기도는 충분하지 않으며 몸과 마음이 함께 모여야 가능하다. 몸, 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현존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기도는 평안, 자유, 행복의 에너지가 있는 대상 즉, 부처님, 보살들, 조상들, 부모님께 기도한다. 기도는 먼저 간 분들에게도 기도하지만 가족, 친구 이웃 등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도한다.

가족들이 식사할 때 하는 식사기도문, 생일 축하 기도문, 진학 기도문, 입사 시험 기도문 등 기도의 종류는 다양하다. 경전 수행법은 경전을 입으로 외우는 독경, 손으로 쓰는 사경, 소리를 내든 그렇지 않든 한 계송을 뚫어지게 보고 음미하는 간경수행이 있다(불광미디어, 2021). 경전의 암송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르침에,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하는 염불기도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기도 방법이다. 전생의 업장이 두터운 사람은 다라니기도를, 이성적이고 자주적인 사람은 경전을 독경하거나 사경을 한다(법보신문, 2019). 사경을 하면 공덕이 있다. 하지만, 그 공덕에 집착하면 기복신앙이 된다(법륜, 2010). 기도의 방법은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로 기도해야 한다. 입으로, 그리고 생각만의 기도는 부족하다. 마음이 깨어있을 때 우리의 몸, 말, 생각은 하나가 된다. 이때 우리는 힘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만들어진다.

효과적인 기도의 첫 번째 요인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다(틱낫한, 2006). 기도는 부처님, 보살님과 만남이자 소통이다. 아픈 사람은 약사여래불과 소통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문수보살님과 소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님과 소통한다(법보신문, 2019). 소통은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떤 사람에게서 마음이 모아지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힘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자신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가능하다. 기도할 때 필요한 두 번째 요인은 에너지이다. 이 에너지는 사랑, 마음챙김, 그리고 올바른 집중을 포함한다. 마음챙김이란 몸과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평화롭게 현존하게 하는 것 즉, 깨달음과 초월적인 지혜를 의미하는 반야(般若)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는 불가능하며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틱낫한, 2016).

기도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건강, 성공, 인간관계 혹은 사랑을 위해 기도한다. 완벽한 건강이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건강하지 않아도 기쁨과 평화를 위한 기도는 가능하다. 건강하지 않음은 수행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병든 몸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병과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불교의 기도는 수행을 근간으로 하며, 삶의 두 면인 몸과 마음을 건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자신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생기 넘치는 에너지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외부에 있는 에너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불교는 기도와 실천을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기도에는 마음챙김 집중, 깨달음, 따뜻한 친절, 그리고 자비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기도

에는 분노, 원망, 질투는 거의 없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불교가 버려야 할 대상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사회와 국가를 위한 기도로, 인류를 위한 기도로 키워가는 일이 중요하며,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다(중앙일보, 2017). 법륜스님(2020)은 기도의 효과를 다섯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을 잡아준다. 둘째, 부모가 꾸준히 기도를 하면 자녀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준다. 셋째, 지속적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감을 형성한다. 넷째, 지속적인 기도는 자신에 대한 신뢰감 및 자존감이 형성된다. 다섯째, 회광반조 즉,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진다. 여섯째, 마음에 걸림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리게 된다.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의 대상인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굳게 믿고 매일 반복해서 하는 간절한 염원을 품는 일이다(법보신문, 2019). 간절한 믿음, 공경하는 정성,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마음(자현, 2019),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기도는 성취된다(현대불교, 2023) 기도란 부처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자신의 과거업장을 소멸시키고 세속의 험난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힘, 믿음, 그리고 에너지를 키우는 과정이므로(불교신문, 2020), 기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다른 어떤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기도의 본질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다. 나와 남이 동시에 깨닫고 해탈하기를 즉,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도 역시 공덕을 쌓는 또 하나의 수행이다(동명, 2023). 기도하는 이유와 수행하는 이유는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온갖 살아있는 존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맑은 마음을 갖고자 수행하며, 이것은 수행자들의 커다란 서원이다. 하지만, 수행자들의 기도의 동기는 다르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기도를 한다. 수행자들은 사물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에 가 닿을 때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활 속에서 깨달을 때까지 수행한다. 이것이 충족된다면 건강과 성공에 따라 괴롭지 않으며 이에 의존하지 않을 때 좋은 인간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수행자의 가장 깊은 염원은 궁극의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다.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모든 현상이 서로 어떻게 이어져있는지를 보는 능력이다. 궁극의 차원에 이르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기지 않으며 모두가 어울려 사는 평화롭고 즐거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지혜는 자비, 이해, 마음챙김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집단의식도 바꾸게 된다.

불교에는 몸, 입, 마음으로 지어내는 건전하지 못한 행동과 눈, 귀, 코, 혀, 몸의 다섯 가지 감각의 유혹이 있다. 유혹은 탐욕, 분노, 의심, 번뇌 등으로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에서는 이 유혹을 삼악도(三惡道)로 설명한다. 삼악도에 빠진 사람들은 끝없이 이해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 분노와 증오, 그리고 욕망과 질투로 타오르는 사람, 그리고 오직 자기 욕망만 쫓는 사람들이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쉽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수련하는 스승, 친구들의 에너지로 보호받아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마음챙김을 유지하고 수행공동체 내에 있을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함으로써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을 얻고 더불어 마음챙김의 에너지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다. 귀의란 온전한 것에 접속하여 가장 깊은 염원 안에서 자기를 붙들어둔다는 의미이다.

집단의식은 모든 변화의 열쇠이다. 불교전통에서는 개인이 하는 기도보다 수행공동체에서 함께하는 기도에 더 큰 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수행공동체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공동체의 한 멤버이다. 함께 수행하는 동료들의 집중된 마음은 큰 열쇠이다. 백 명 또는 수천 명의 수행자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몸, 말, 마음으로 짓는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수련을 함께 할 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에너지를 보낼 때, 그곳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매우 강력해서 우리가 업이라고 부르는 것 즉, 우리의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틱낫한, 2016). 기도의 마무리는 사홍서원이다. 사홍서원의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기도의 에너지가 완전히 변하게 된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보리심은 성불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불광미디어, 2021).

본 연구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기도에서 염원한 발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강경 기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은 ‘금강경 기도’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셋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은 기도와 함께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에서 진행한 ‘금강경 기도’에 참여한 참여자 30명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성별은 30명 중 ‘여성’이 26명(86.7%), ‘비구니’가 1명(3.3%), 무응답이 3명(10.0%)였으며,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61.08세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4명(46.7%)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는 ‘불교’가 27명(90.0%)로 가장 많았다. 종교생활 기간은 20년 이상이 12명(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강경 기도’ 참여 계기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가 17명(56.7%)으로 가장 많았다. ‘금강경 기도’ 참여를 통해 도움받고 싶은 것은 ‘심리정서’ 13명(43.3%), ‘불교신행생활’ 11명(3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

(N=30)

| 구분                                     |               | 빈도 | %    |
|----------------------------------------|---------------|----|------|
| 성별                                     | 여성            | 26 | 86.7 |
|                                        | 비구니           | 1  | 3.3  |
|                                        | 무응답           | 3  | 10.0 |
| 연령                                     | 평균 61.08 세    |    |      |
| 학력                                     | 중학교 졸업        | 1  | 3.3  |
|                                        | 고등학교 졸업       | 9  | 30.0 |
|                                        | 대학교 졸업        | 14 | 46.7 |
|                                        | 대학원 이상        | 3  | 10.0 |
|                                        | 무응답           | 3  | 10.0 |
| 종교                                     | 불교            | 27 | 90.0 |
|                                        | 무응답           | 3  | 10.0 |
| 종교생활 기간                                | 1년 미만         | 2  | 6.7  |
|                                        | 1년 이상 5년 미만   | 4  | 13.3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  | 6.7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4  | 13.3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  | 6.7  |
|                                        | 20년 이상        | 12 | 40.0 |
|                                        | 기타            | 1  | 3.3  |
|                                        | 무응답           | 3  | 10.0 |
| ‘금강경 기도’ 참여 계기                         |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 17 | 56.7 |
|                                        | 친구의 권유        | 3  | 10.0 |
|                                        | 스님의 권유        | 1  | 3.3  |
|                                        | 기타            | 5  | 16.7 |
|                                        | 무응답           | 4  | 13.3 |
| ‘금강경 기도’ 참여를 통해<br>도움받고 싶은 부분<br>*중복응답 | 심리정서          | 13 | 43.3 |
|                                        | 대인관계          | 1  | 3.3  |
|                                        | 가족문제          | 3  | 10.0 |
|                                        | 불교신행생활        | 11 | 36.7 |
|                                        | 기타            | 3  | 10.0 |

###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CQR-M(Con s en sua l Qua lita tive Re sea rch-Mod ified)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CQR-M은 CQR(Con s en sua l Qua lita tive Re sea rch)의 합의적 질적 방법의 구성요소와 발견 지향적이고 탐색적인 접근방법을 융합시킨 질적 연구 방법으로 Spang e r, L iu, & Hill, 2011), 상대적으로 간단한 데이터를 합의팀의 합의를 사용하여 범주에 직접 코딩한다. CQR-M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어떠한 현상을 탐색하는데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탐색과 발견뿐만 아니라 양적연구와 결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Hill, Spang e r, Sim, & Bau mann, 2007).

본 연구방법은 연구에서 미리 정해놓은 구조에 따라 분석하는 방법 보다는 데이터로부터 범주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을 취한다. 범주 개발에 있어 연구자들은 합의팀으로써 연구 결과를 합의해나가기 위한 분석 방법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범주 개발 중에도 범주 개발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합의 내용과 합의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 연구단계는 첫째 연구시작 단계, 둘째 분석 단계, 셋째 글쓰기 단계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시작 단계에서는 서면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영역을 개발하고 범주를 목록화하고, 코딩팀을 구성하고, 영역 및 범주를 수정하고, 데이터를 범주에 코딩하는 절차를 거쳤다.

CQR-M은 연구대상의 수가 많은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QR이 보통 15명 이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는 것과는 달리 CQR-M은 보다 많은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Hill, Spang & r, Sim, & Baumann, 2007). CQR-M은 응답 반응의 빈도수를 수치화하는데, 각 범주의 빈도를 전체 반응수로 나누어 30% 이상의 차이가 나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다(Spang & r, Liu, & Hill, 2011).

### 3. 분석팀

본 연구의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진 4명과 외부 감수자 1인이 함께 분석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CQR 및 CQR-M을 사용한 상담관련 주제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한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으며, 추가 연구진은 학술연구 및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질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적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분석팀 4인은 CQR-M의 방법을 문헌을 통해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 4. 자료수집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의 금강경 기도회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철야정진으로 이루어지는데 범문, 금강경 한글 독송, 금강경 한문 독송, 진언, 축원으로 진행되며 2023년 3월부터 매월 2번째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30명의 ‘금강경 기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으로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 수집을 위하여 ‘금강경 기도’ 종료 후 연구에 대해서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질문지는 본 연구의 연구문제 1, 2, 3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진행되었으며, 질문지를 미리 제공하고 금강경 기도에서 경험한 것들을 잠시 떠올려 본 후 진행하였다. 자료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질문지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 5. 분석절차

수집된 30개 질문지의 95개의 응답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5개를 연구자들이 각자 읽고 영역과 범주를 구성한 후, 4명이 모여 합의하여 1차적으로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과 기도를 통한 변화, 이윳을 위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영역을 구성하였다. 이를 기초로 각자 나머지 질문지들을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 영역에 대해 이후 3회 더 합의과정을 거쳐 하위 영역들의 범주를 구성하는 작업을 하였고, 감수자에게 감수 받는 과정을 거쳤다. 최종적으로 연구문제에 따른 3개 영역과 9개 하위영역, 28개 범주를 도출한 후 하위영역별로 각 범주의 비율을 산정하였다.

## III. 연구결과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윳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의 3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9개 하위영역을 도출하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비율을 구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 1.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 내용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에서는 ‘나’를 위한 발원, ‘가족’을 위한 발원, ‘지인’을 위한 발원,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의 4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2&gt;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 내용

| 하위 영역 및 범주                      | 빈도 | 비율     |
|---------------------------------|----|--------|
| ‘나’를 위한 발원                      | 17 | 100.0% |
| - 나의 마음의 안정에 대한 발원              | 8  | 47.1%  |
| - 나의 업장과 번뇌 소멸에 대한 발원           | 4  | 23.5%  |
| -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발원 | 3  | 17.6%  |
| -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를 바라는 발원       | 2  | 11.8%  |
| ‘가족’을 위한 발원                     | 14 | 100.0% |
| - 가족 건강을 바라는 발원                 | 7  | 50.0%  |
| -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 4  | 28.6%  |
| -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라는 발원         | 2  | 14.3%  |
| - 가족들의 불교 수행생활에 대한 발원           | 1  | 7.1%   |
| ‘지인’을 위한 발원                     | 4  | 100.0% |
| - 지인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 3  | 75.0%  |
| - 지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 1  | 25.0%  |
|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                  | 4  | 100.0% |
| - 일체 중생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 2  | 50.0%  |
| - 일체 중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발원        | 2  | 50.0%  |

#### 가. ‘나’를 위한 발원 내용

첫 번째 하위 영역인 ‘나’를 위한 발원 내용에서는 ‘나의 마음의 안정에 대한 발원’, ‘나의 업장과 번뇌 소멸에 대한 발원’,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발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를 바라는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나의 마음의 안정에 대한 발원

“마음의 화내고 어리석음을 없애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참여자 6>

“내가 행복하고 편안해야만 모든 인연이 행복하고 편해진다는 생각에 금강경기도를 통해 나부터 행복하고 편해지고자 기도에 동참했음” <참여자 18>

##### 2) 나의 업장과 번뇌 소멸에 대한 발원

“금강경기도에 참여해서 철야기도를 시작하고 나니 그저 제 업장을 소멸해서 편안한 삶을 살고 죽는 날까지 정신줄 끊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참여자 12>

“고통의 번뇌 소멸” <참여자 5>

##### 3)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발원

“부처님전에 복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 쌓는 발원. 아프지 말고 1년 동안 빠짐없이 금강경 봉찬기도 할 수 있길 발원” <참여자 5>

“부처님처럼 복과 지혜를 두루 갖추어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싶어 발심하였고 생활 속의 지혜는 부처님 경전속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되어 부처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참여자 2>

##### 4)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를 바라는 발원

“가계의 안정적인 수입창출” <참여자 2>

“사업성취” <참여자 26>

#### 나. ‘가족’을 위한 발원 내용

두 번째 하위 영역인 ‘가족’을 위한 발원에서는 ‘가족 건강을 바라는 발원’,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라는 발원’, ‘가족들의 불교 신행생활에 대한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가족 건강을 바라는 발원

“가족 건강” <참여자 4>

“가족 구성원의 건강 발원” <참여자 24>

##### 2)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금강경 봉찬기도를 처음 참여하면서는 정말 몰랐다. 아무것도. 그런데 벌써 5차수에 참여 중이다. 남은 인생이 지루하고 막막하지 않고 가족 모두의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맘이다.” <참여자 15>

“아들의 공황장애가 소멸하고 행복해지기를 발원합니다.” <참여자 17>

##### 3)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라는 발원

“아들이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기를” <참여자 2>

“딸이 창업 준비하는 일이 잘 되길 그저 평범하지만 늘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참여자 12>

##### 4) 가족들의 불교 신행생활에 대한 발원

“가족들에게 불교 포교” <참여자 4>

#### 다. ‘지인’을 위한 발원 내용

세 번째 하위 영역인 ‘지인’을 위한 발원 내용에서는 ‘지인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지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지인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내가 아는 보살님들(기도하시는) 모두 성불하시길” <참여자 1>

“시댁, 친정, 직계 가족을 또 주변분들도 지인분의 성불을 바라는 마음으로 금강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금강경 봉찬기도를 만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여자 27>

##### 2) 지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나로 인해 주위 분들이 행복할 수 있길.” <참여자 6>

#### 라.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 내용

네 번째 하위 영역인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 내용에서는 ‘일체 중생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일체 중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일체 중생들을 성불을 바라는 발원

“자유자재한 나로 인해 가족 및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성불에 도움이 되는 이로운 사람되길 발원합니다.” <참여자 29>

“내가 일체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큰 원을 세우고 발원하는 것이다.” <참여자 14>

## 2) 일체 중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발원

“중생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고 무장무애하기를 발원합니다.” <참여자 3>

“일체중생들 모두 건강과 행복과 성불하시길 발원” <참여자 5>

## 2.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에서는 내적인 변화,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의 3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lt;표 3&gt;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

| 하위 영역 및 범주                       | 빈도 | 비율     |
|----------------------------------|----|--------|
| 내적인 변화                           | 12 | 100.0% |
| - 마음의 여유를 갖게됨                    | 5  | 41.7%  |
| - 부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 | 5  | 41.7%  |
| - 선행을 하고자 노력함                    | 2  | 16.7%  |
|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 7  | 100.0% |
| -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함 | 3  | 42.9%  |
| -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자 함              | 2  | 28.6%  |
| -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짐          | 1  | 14.3%  |
| -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함        | 1  | 14.3%  |
|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                     | 11 | 100.0% |
| -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함                   | 7  | 63.6%  |
| -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 동참을 권유함          | 3  | 27.3%  |
| - 도반과 공부 내용을 나눔                  | 1  | 9.1%   |

## 가. 내적인 변화

첫 번째 하위 영역인 ‘내적인 변화’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됨’, ‘부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 ‘선행을 하고자 노력함’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마음의 여유를 갖게됨

“짜증이 날때도 기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여유가 생겼음을 비로소 느낀다. 앞으로 더더더욱 신심가득 수행자와 같은 모습으로 전정하였음 좋겠다. 그렇게 되겠다.” <참여자 5>

“나 자신 좀 직설적이고 급한 성격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템포 쉬어가고 하루 더 생각하고 머물러 기다리고 “그럴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참여자 15>

## 2) 부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

“원만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아상과 아집과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럴때마다 알아차리고 모든 것은 “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칠때는 모든 것은 ‘공’하다는 마음으로 돌립니다.” <참여자 6>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수지독송하는 분은 부처님께서 알고 다 보아 불가사의한 공덕이 생긴다는 말씀을 믿고, 나와 인연있는 분들께 나의 생각, 소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인욕행을 실천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에 맞부딪힘이 있으면 죽비논리에 근거해 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9>

## 3) 선행을 하고자 노력함

“선행을 위주로 노력 많이 하고 있음” <참여자 5>

“선행실천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4>

## 나.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에서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함’,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자 함’,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짐’,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함’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함

“가족, 친구, 동료에게 좋은 말과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늘 생각한다.” <참여자 26>

“꾸준히 따라 연습하니 가족과 친구 등등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행복하다고 합니다. 기도의 덕분임을 알아차림 합니다.” <참여자 28>

### 2)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자 함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기도하는 동안 심신안정과 가족건강과 화를 누르는 기도에 전념하게 되었다.” <참여자 7>

“가까운 가족에게 화가 많고 감정의 기복이 심했는데 화가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가족간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참여자 20>

### 3)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짐

“친구, 직장동료들에게는 항상 양보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미움이나 질투의 마음이 없습니다.” <참여자 2>

### 4)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함

“업을 짓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타인과의 갈등을 살짝 피한다. 되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참여자 1>

## 다.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

세 번째 하위 영역인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에서는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함’,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 동참을 권유함’, ‘도반과 공부 내용을 나눔’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함

“매일 금강경 1독 실천은 예불, 좌선, 다른 경전으로 공부하는데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9>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생활이(삶) 편안해짐을 느끼며, 삶이 평화로워짐을 느껴서, 매일 저녁에 요즘은 오후 3-4에 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 2번, 내지 3번 읽고 있습니다.” <참여자 11>

### 2)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 동참을 권유함

“가족, 친지, 도반에게 금강경 독송을 일상생활과 더불어 함께한다고 알려드리고 동참을 권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4>

“마음이 불편해 보이는 지인들에게 금강경 책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7>

### 3) 도반과 공부 내용을 나눔

“도반들과 공부내용을 공유하고 나눕니다.” <참여자 9>

## 3.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웃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웃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에서는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의 2개 하위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웃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

| 하위 영역 및 범주                | 빈도 | 비율     |
|---------------------------|----|--------|
|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 11 | 100.0% |
| - 불교 수행에 매진함              | 6  | 54.5%  |
| - 타인을 돕기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함 | 5  | 45.5%  |
|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 15 | 100.0% |
| -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를 권유함      | 5  | 33.3%  |
| - 도반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함         | 4  | 26.7%  |
| - 중생을 위한 발원을 세우고 실천함      | 3  | 20.0%  |
| - 포교에 힘씀                  | 3  | 20.0%  |

### 가.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하위 영역인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불교 수행에 매진함’, ‘타인을 돕기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함’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불교 수행에 매진함

“아직 신심이 약한 것 같아 아직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불경에 대화 나누면서 전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여자 7>

“위인 해설에 근거하여 불교대학에서 경전 공부를 계속하여 나름 자기수행으로 가족, 이웃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참여자 29>

#### 2) 타인을 돕기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함

“내가 마음을 잘내고 사물 대중을 볼 때 진정한 불심이 발심하고자 내 마음을 돌보고 있다. 이렇게 해야 이웃과 대중에게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19>

“내 모습이 행복하면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알고자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과 스님들께 배운 법문을 가끔씩 인용하게 함께 웃습니다.” <참여자 28>

### 나.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는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를 권유함’, ‘도반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함’, ‘중생을 위한 발원을 세우고 실천함’, ‘포교에 힘씀’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 1)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를 권유함

“이웃에게 지인에게 금강경을 수지 독송함으로써 밝아지고 부처님 가피와 지혜가 스스로 안개 비 처럼 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여자 11>

“난 평소 주변에 뭘 권하고 먼저 말할 줄 모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씩 한구절 법구경을 전하고 기도를 해보라고 권하기도 한다.” <참여자 15>

## 2) 도반들과 함께 신행활동을 함

“이제 시작한 불자로서 도반들과 열심히 봉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1>

“이번 금강경 봉찬기도를 하면서 지난달 좋은 도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봉사도 해보고 좋은 인연을 만나고 주변분들에게 더 많이 알려면서 열심히 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27>

## 3) 중생을 위한 발원을 세우고 실천함

“성불을 이루고 난후에 많은 이웃과 가깝게는 가족들도 함께 많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발원을 세워 실천한다.” <참여자 14>

“나와 인연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자 한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일을 배우고 있는데 더 깊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 <참여자 26>

## 4) 포교에 힘씀

“마음공부, 불교 공부 많이 해서 포교사(해설사) 활동 열심히 하고자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17>

“부처님 법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자 24>

## IV. 논의

본 연구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 경험의 주관적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한불교조계종 금강경 기도에 참여한 30명을 대상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에 금강경 기도의 발원의 대상과 기도를 통한 변화, 이웃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웃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의 3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9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결과들에 대한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에서는 ‘나’를 위한 발원, ‘가족’을 위한 발원, ‘지인’을 위한 발원,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의 4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 영역인 ‘나’를 위한 발원 내용에서는 ‘나의 마음의 안정에 대한 발원’, ‘나의 업장과 번뇌 소멸에 대한 발원’, ‘내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잘 해나가길 바라는 발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를 바라는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개인적인 소망으로 개인의 성취, 심리적 안정과 같은 일신(一身)을 위한 발원과 개인의 불교신행생활, 더 넓은 의미에서 수행을 위한 발원을 세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두 번째 하위 영역인 ‘가족’을 위한 발원에서는 ‘가족 건강을 바라는 발원’,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자녀가 원하는 것을 이루길 바라는 발원’, ‘가족들의 불교 신행생활에 대한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하위 영역이 ‘나’였다면, 두 번째 하위 영역은 ‘나’라는 개인을 둘러싼 가장 가까운 체계인 가족으로, 가족의 건강, 불교 신행생활, 소망 실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향한 애정과 지지의 내용이 발원의 주요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세 번째 하위 영역인 ‘지인’을 위한 발원 내용에서는 ‘지인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지인들의 행복을 바라는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하위영역의 ‘지인’을 위한 발원은 두 번째 하위영역인 ‘가족’에서 보다 영역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도를 하며 나와 가까운 사람들의 궁극적인 행복 성취를 염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번째 하위 영역인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 내용에서는 ‘일체 중생들의 성불을 바라는 발원’, ‘일체 중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발원’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첫 번째 하위 영역인 ‘나’, 두 번째 하위 영역인 ‘가족’, 세 번째 영역인 ‘지인’을 넘어,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물, 즉 ‘일체 중생’까지 나와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건강과 행복과 성불을 바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의 성불을 이루고 ‘일체중생 구제라는 발원’, 즉 나와 연결된 이웃들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인연을 맺는 것이 금강경 발심임을 고려한다면(현대불교, 2014.11.28), 첫 번째 연구문제인 ‘금강경 기도의 발원의 내용’은 연구의 참여자들이 금강경 기도의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발심

을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수행에 정진해온 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에서는 내적인 변화,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의 3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 영역인 ‘내적인 변화’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됨’, ‘부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수행하는 자세로 살아감’, ‘선행을 하고자 노력함’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됨’은 김희종(2021)의 금강경 독송 수행법을 실천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금강경 독송을 통해 공경심, 착각소멸, 고요의 세계의 체험이 도출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금강경 기도·독송이 발심 뿐 아니라 발심한 바를 수행을 포함하므로 부처님을 따르고 선행을 하고자 하는 바 또한 넓은 의미의 금강경 기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에서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함’,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자 함’,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짐’,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함’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나와 관련된 가족, 지인, 타인 등 일체 중생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 또한 금강경 기도를 통한 수행 실천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하위 영역인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에서는 ‘금강경 독송을 생활화함’,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 동참을 권유함’, ‘도반과 공부 내용을 나눔’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한번 독송하도록 권유되는 금강경의 수행을 기도 참여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바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참여한 금강경 봉찬기도를 기획하고 운영한 오대산 월정사에서 전용앱 ‘오대산 금강경’을 구축하여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는데(불교신문, 2023.03.29), 이러한 전용앱의 사용이 금강경 기도를 생활화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경험한 긍정적인 경험들로 인해 주변인에게 기도 동참을 권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도반과 함께 공부를 나누는 것은 ‘금강경 기도’가 단순히 기도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행을 함께 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셋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웃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에서는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의 2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 영역인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불교 수행에 매진함’, ‘타인을 돕기 위해 내 마음의 안정을 도모함’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하위 영역인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는 ‘주변인들에게 금강경 기도를 권유함’, ‘도반들과 함께 수행활동을 함’, ‘중생을 위한 발원을 세우고 실천함’, ‘포교에 힘씀’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나의 내부의 변화로부터 타인을 돕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결과는 금강경 기도의 가르침처럼 자신의 성불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것이 타인의 성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의 기도는 부처나 보살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아 따라 자신을 닦아서 나의 행복의 원인을 만들고 가능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tudy Buddhism by Alexander Berzin). 금강경 기도의 목적도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금강경 기도의 참여자들도 이러한 오대산 월정사 금강경 봉찬기도를 통해 금강경 기도의 목적에 따라 자신의 내부의 고요를 찾고 나와 가까운 지인, 더 나아가 일체중생의 성불까지 돕기 위한 기도와 수행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여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성불을 위한 수행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기도에서 세운 발원과 기도를 통해 경험한 변화와 실천의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금강경 기도를 통한 내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얻고 향후 효과 확인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금강경 기도 참여자 중 일부를 표집하여 서면 인터뷰 형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금강경 기도를 통한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모두 여성으로 향후 성별 균형을 맞춘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오대산 금강경 봉찬기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전의 기도 경험, 금강경 기도 경험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참여자의 기도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룹화 한다면 보다 그룹별 특성에 맞는 금강경 기도의 세분화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기도에서 염원한 발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금강경 기도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30명의 금강경 기도 참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질문지를 직접 수집하는 방법으로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수정된 합리적 질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문제에 따른 3개 영역과 9개의 하위영역, 2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

의 기도의 발원의 내용에서는 ‘나’를 위한 발원, ‘가족’을 위한 발원, ‘지인’을 위한 발원, ‘일체 중생’을 위한 발원의 4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둘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금강경 기도’를 통한 변화에서는 내적인 변화, 주변인과의 관계에서의 변화, 금강경 기도 관련 노력의 3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셋째, ‘금강경 기도’ 참여자들이 이웃들을 위해 하고 있는 것에서는 이웃을 위해 내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이웃을 위해 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의 2개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금강경 기도에 실제적인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요소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어

금강경 기도, 참여 경험, 수정된 합의적 질적 방법, 탐색적 연구

## 참고문헌

- 김희종 (2021). 백성옥의 [금강경] 독송 수행법 실천사례 연구. 대각사상, 36, 261-289.
- 등명 (2023). 불교기도문. 서울: 불광출판사.
- 법보신문 (2019). 기도가 불교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416>.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법륜 (2010). 기도: 내려놓기. 서울: 정토출판.
- 불교신문 (2020). 불교는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999>.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불교신문 (2023.03.29). 오대산 월정사 신행결사체 ‘금강경 봉찬기도’ 입재.  
<http://www.ibulgyo.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766>.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불광미디어 (2012). [www.bulg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05](http://www.bulgw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605).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자현 (2019).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울: 조계종출판사.
- 정토회 (2020). 기도하면 좋은 점 여섯가지. 정토회.
- 중앙일보 (2017). 자기욕망 채우기 위한 기도, 그건 불교가 버려야할 대상.  
<http://www.joongang.co.kr/article/21537364#home>.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틱낫한 (2006). 기도. 서울: 명진출판.
- 틱낫한 (2016). 기도의 힘. 서울: 불광출판사.
- 한국일보 (2008). 불교의 기도.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080205/431288>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현대불교 (2014.11.28). 금강경은 인류 교과서... 독송하면 뇌세포 안정.  
<http://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774>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
- Hill, C. E., Spangler, P., Sim, W., & Baumann, E. (2007). The interpersonal content of dreams: Relation to the process and outcome of single sessions using the Hill dream model. *Dreaming*, 17(1), 1-19.
-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1).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An introduction to CQR-M.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udy Buddhism by Alexander Berzin.  
<https://studybuddhism.com/ko/haegsim/mueos-inga/bulgyoeseo-gidolan-mueos-inga>에서 2023년 9월 30일 인출함.